

프랑스의 유출 이민과 유입 이민 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유출 이민율(emigration rate)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유출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영사기록으로 추정된 출입국 현황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출 이민의 성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프랑스의 이주 현황을 이웃 국가 및 다른 OECD 회원국의 현황과 비교해 보고 해외 거주 프랑스인(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¹⁾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OECD 이민자 데이터베이스(DIOC)²⁾를 통해 알아본다. 또한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최근 유출 이민과 유입 이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해외 거주 프랑스인'과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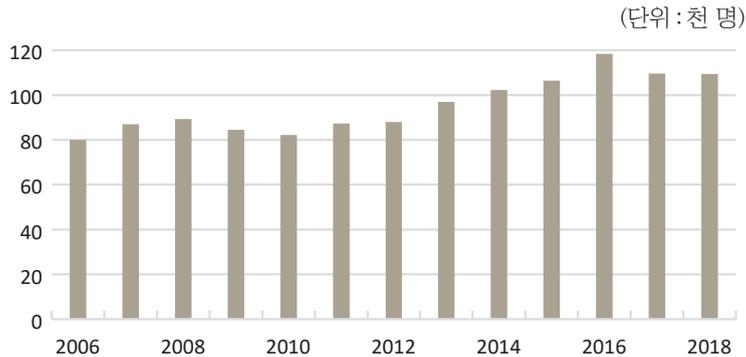
2) 이 데이터(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 DIOC)에서 프랑스 국적의 유출 이민자는 '출생국가' 항목을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실제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기에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가지 경우는 유출 이민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 귀화한 이민자의 유출 이민 또는 프랑스로 재이민한 프랑스인 부모를 가진 해외 출생 자녀의 유출 이민은 위에서 정의된 유출 이민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프랑스 유출 이민의 최근 동향³⁾

『국제 이주 전망(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0만 9천 명의 프랑스인이 다른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10만~12만 명 사이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2000년대 수치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프랑스 국적 이민자들은 주로 유럽국가로 이주했으며 이 중 독일, 영국, 스페인, 벨기에가 각각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고, 캐나다와 일본(5%) 그리고 미국(4%) 또한 주요 목적지였다.

하지만 이 통계는 목적지 국가의 기록(입국 기록 및 체류증 발급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몇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아동 인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EU 내 모든 단기 이동은 누락되었다. 또한 목적지 국가가 OECD 회

[그림 1] 프랑스인의 OECD 회원국으로의 이주 현황(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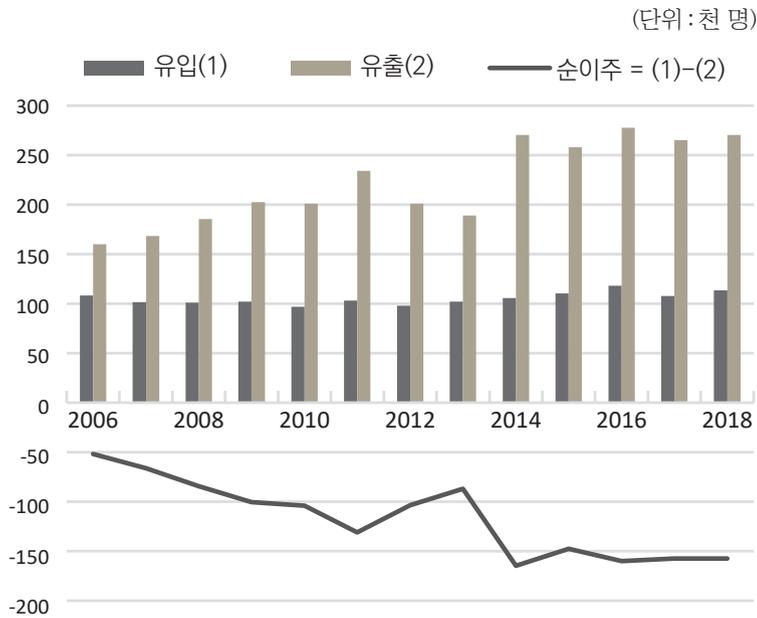
자료: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ls/mig/keystat.htm>, Barbara, M. A. et al.(2021), p.2 재인용.

3) Barbara, M. A. et al.(2021), “De la France vers le monde : que révèle l’augmentation de l’émigration française?”, Note d’information sur les données migratoires, *Migration Data Brief*, No. 6, OECD, <https://www.oecd.org/fr/els/mig/Brief%20C3%A9migration%20fran%C3%A7aise%20FINAL.pdf>
 Lê, Jérôme(2021), “En 2017, 44% de la hausse de la population provient des immigrés”, *Insee Première*, No. 1849, Insee.(<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351267>)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원국이 아닌 경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출 이민의 증가 추세는 프랑스 통계청의 프랑스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06~2018년 연간 유출 이민자 수는 16만~27만 명으로 증가했다(그림 2 참조). 이는 프랑스 인구의 0.4% 수준이며 유입과 유출의 차이로 계산된 프랑스 출생 인구의 연간 순이주는 16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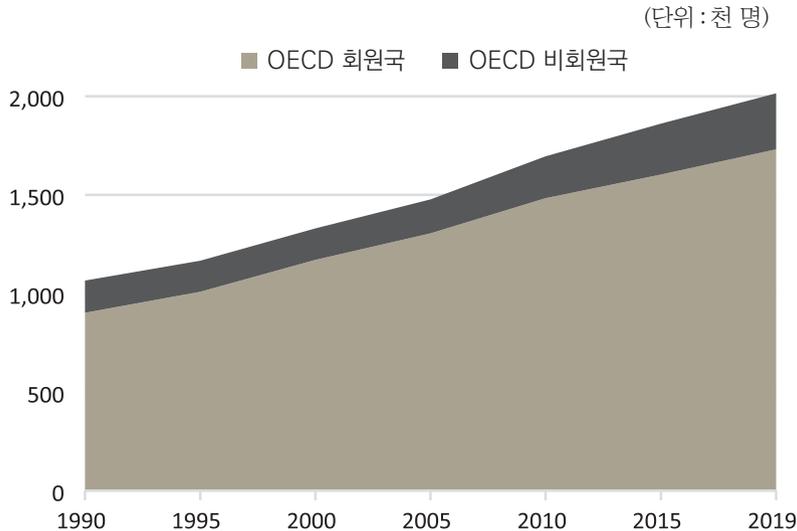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 국적의 유출·유입 이민자 현황(2006~2018)



자료: 프랑스 통계청(2020),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176348#figure1_radio2

추가로 출·입국 기록과 같은 유량 데이터가 아닌 저장 데이터인 UN 경제사회처(UN DES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년 전 120만 명 미만이었던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수는 2019년 말 약 18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52%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전 세계 이민자 수는 56% 증가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해외 거주 프랑스인 현황(1990~2019)



자료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9),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19*, United Nations database, POP/DB/MIG/Stock/Rev.2019, Barbara, M. A. et al.(2021), p.4 재인용.

■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의 목적지

15세 이상 성인의 OECD 회원국 간 이동을 보여주는 OECD 이민자 데이터베이스(DIOC)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의 85%(173만 명)가 OECD 회원국에 정착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EU와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또한 이들 6명 중 1명은 북미, 8%는 아프리카, 5.5%는 아시아, 3.5%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 중이다.

2000~2001년과 2015~2016년 사이에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 수는 이스라엘(107.1%), 독일(97%), 영국(79%) 그리고 캐나다(75.1%)에서 매우 증가했다. 증가율은 미국(13.2%), 벨기에(18.4%) 그리고 스페인(10.5%)에서 좀 더 완만했으며, 주요 목적지 국가 중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11.8%).

<표 1> 프랑스 국적 15세 이상 유출 이민자의 주요 거주지(2000~2001, 2015~2016)

	평균인원 2000~2001(명)	평균인원 2015~2016(명)	증가율(%)	증감수(명)
미국	188,600	213,500	13.2	24,900
벨기에	141,900	168,100	18.4	26,200
스페인	150,300	166,000	10.5	15,700
영국	85,300	152,700	79	67,400
스위스	93,900	147,400	57	53,500
캐나다	75,600	132,300	75.1	56,700
이탈리아	125,500	110,700	-11.8	-14,800
독일	55,200	109,000	97.4	53,800
포르투갈	82,000	95,600	16.6	13,600
이스라엘	21,100	43,600	107.1	22,500

자료 : OECD, 이민자 데이터베이스(DIOC), Barbara, M. A. et al.(2021), p.5 재인용.

거주기간 또한 목적 국가별로 상이함을 보였다. 프랑스 전체 유출 이민자의 22%가 5년 이하, 11%가 5~10년, 67%가 10년 이상 거주한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대부분이 10년 이상을 체류한 반면 스위스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절반이 5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기록했다.

■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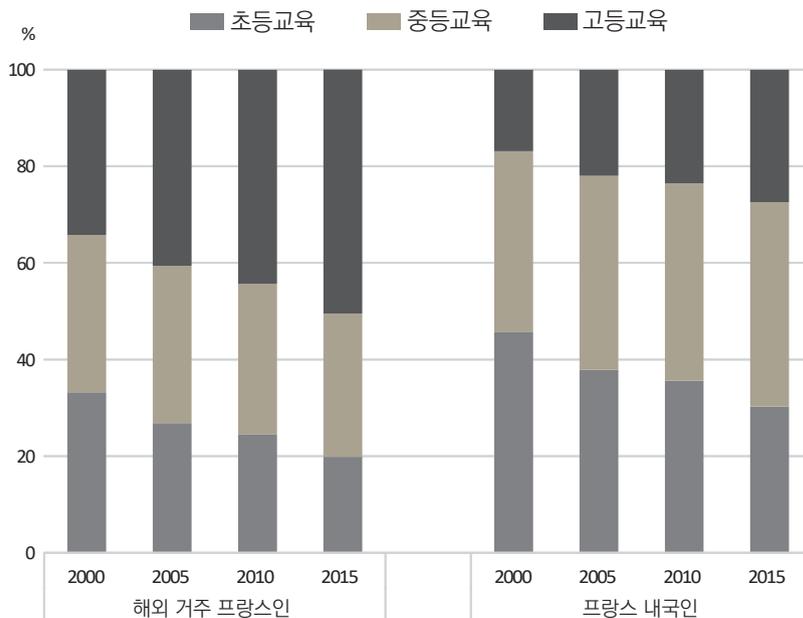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 중 여성이 53%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이 25세에서 64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 사유가 대부분 취업 등의 경제적인 이유인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주 프랑스인과 프랑스 내국인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면 유출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유출 이민자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프랑스 내국인은 28%만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교육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유출 이민자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이 16%p 증가한 것에 비해 프랑스 내국인의 동일 비율은 11%p 증가에 그쳐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다.

2015년 현재 프랑스 국적의 전체 고등교육 이수자 중 6%가 다른 OECD 국가에 거주 중이며(초등교육 이수자의 경우 2%) 유출 이민자에 고등교육 이수자가 더욱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많은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 이수자의 유출 이민율이 초등교육 이수자의 유출 이민율보다 높게 관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교육 수준에서 OECD 회원국 중 낮은 유출 이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뇌 유출이 적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젊은 대학 졸업자들이 세계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편입되어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프랑스인의 유동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OECD 데이터는 해외 취업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타 OECD 회원국 거주 프랑스인의 전체 고용률은 2015~2016년 72.4%로 프랑스 내국인의 64.4%와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

[그림 4] 해외 거주 프랑스인과 프랑스 내국인의 교육 수준 분포 추이(2000~2015)



자료 :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ls/mig/keystat.htm>, Barbara, M. A. et al.(2021), p.7 재인용.

수준의 분포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교육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다도 일반적으로 유출 이민자의 고용률이 프랑스 내국인의 고용률보다 더 높았다.

■ 코로나19가 출·입국에 미친 영향

2020년 3월 16일에 시작된 봉쇄령에 따라 3월 16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만료 예정이었던 많은 종류의 비자(장기 체류 비자, 임시 체류증, 망명 신청증 등)가 예외적으로 6개월 자동 연장되었으며, 3월 17일 프랑스는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EU 및 쉥겐조약 가입국 외의 타국적자 입국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로의 입국과 출국(즉, 다른 국가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민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20년도 인구통계 데이터는 아직 이용 가능하지 않기에 보건 위기가 미친 프랑스 입국자 수의 변화를 프랑스 내무부의 체류증 발급 데이터⁴⁾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1% 감소했다. 경제적 동기를 위한 발급이 가장 큰 감소율(-31%)을 보였고 학업(-20%), 가족(-17%), 인도적 동기(-15%)를 위한 발급 또한 모두 감소했다. 추가적으로 고용 통계에 따르면 2019~2020년 마요트 등의 해외 영토를 제외한 프랑스로의 이민자 입국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U 회원국에서의 입국은 18% 감소, 기타 다른 국가에서의 입국은 22% 감소).

■ 맺음말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의 유출 이민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출 이민율이 낮은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2015~2016년 현재 프랑스의 유출 이민율은 2.7%(2000~2001년 기준 2.2%; 2005~2006년 기준 2.4%)로 독일보다는 2%p 낮으며, 영국이나 스위스의 1/2,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의 1/6 수준에 해당한다. 증가세가 지속되어 다

4) 프랑스에 입국 시 발급받는 1년짜리 첫 체류증에 관한 데이터를 말함.

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여부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보건 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심화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프랑스로의 이민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프랑스인의 이민 전망과 목적 국가 선택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국가별 입국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많은 프랑스 국적 유출 이민자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양상을 예측하려면 프랑스 유출 이민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이들의 이민 동기와 이민 경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KLI**